

간호 대학생의 감성 지능과 자기 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양선이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Sun-Yi Yang(ysy@chu.ac.kr)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감성 지능과 자기 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로 일 대학의 간호 대학생 199명이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General Self-efficacy Scale, 임상수행능력 도구를 통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감성 지능, 자기 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은 중간 수준(감성 지능은 $M=4.7$, $SD=0.81$; 자기 효능감은 $M=3.2$, $SD=0.34$; 임상수행능력(5점 만점)은 $M=3.4$, $SD=0.5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 대학생의 학년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감성 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성($r=.566$, $p<.001$),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r=.44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 지능, 자기 효능감, 성별이었다.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총 49.3%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서는 이들 변수를 반영한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전략마련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감성 지능 | 자기 효능감 | 임상수행능력 | 간호 대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e of the Korean nursing students. A total of 199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questionnaires constructed to include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General Self-efficacy Scal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Scale. As a result,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y of the Korean nursing students were found to be at moderate levels (Emotional intelligence: $M=4.7$, $SD=0.81$; Self-efficacy: $M=3.2$, $SD=0.34$; Clinical competency: $M=3.4$, $SD=0.56$). Also, the nursing students with higher grades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higher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e. Moreover,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inical competency ($r=.566$, $p<.001$),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y ($r=.440$, $p<.001$). The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y were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gender. They amounted to 49.3% in clinical competency. These results indicate a need to develop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learning strategies to promote clinical competency of the nursing students.

■ keyword : | Emotional Intelligence | Self-efficacy | Clinical Competence | Nursing Students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 교육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을 보건 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간호역량을 갖추도록 준비시킴으로써 향후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1].

현대 사회는 의료 및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의료정보의 대중화가 이루어 졌으며 국민의 건강 요구 수준 또한 급격히 높아졌다. 이와 같은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다 수준 높은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의 배출을 요구하고 있다[2]. 이에 간호 대학에서는 학과 교육과정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하여 간호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하고 다양한 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를 배출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은 중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과의 소통 능력 부족 및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들과의 치료적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1][3]. 이에 보건 의료기관에서는 임상수행능력 및 소통능력이 부족한 신규 간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1]. 과거 간호 교육은 교수자 중심으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일 방향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간호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지 못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방식으로 간호교육에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4].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된 능력은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과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다[1][5]. 감성 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6][7].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감정이 개입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의 업무를 계획하고 성취하는데 정서를 잘 활용하여 업무 성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8]. 감성 지능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인식하며 감정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므로 정서 조

절 및 표현, 그리고 감정 이입의 근본 바탕이 된다[5]. 이는 다양한 상황에 봉착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며 효율적 대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간호 직종에서 갖추어야하는 주된 능력이기도 하다. 또한, 간호 대학생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진실된 공감 능력은 간호 실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1]. 감성 지능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전문직 수행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임상 간호사의 감성 지능이 직무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감성지능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1][9]. 그러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 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및 영향 요인을 알아본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은 개인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특정한 과제 수행 및 학업 성취 과정에서 수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기도 하다[10]. 또한 자기 효능감은 문제 해결 능력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즉 자기 효능감은 자가 학습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13].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3]. 그러나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성 지능과 자기 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감성 지능과 자기 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감성 지능과 자기 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의 유의한 영향 요인임이 규명된다면, 이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증진을 위해 감성 지능과 자기 효능감이 매우 중요하며, 이 변수들의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교과 및 비교과 과정, 그리고 교수법 개발에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의 감성 지능과 자기 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감성 지능, 자기 효능감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 대학생의 감성 지능,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일 대학의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 2, 3, 4학년 212명을 비 확률 편의표집하여 이 중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13명을 제외한 19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표본 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 표본 수 산출방법인 G power 3.1.3[14]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양측), 80% power, 효과크기 .15 조건 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55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연구 도구

2.1 감성 지능

감성 지능은 자기 자신과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7].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7]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을 정현우[15]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감성 지능의 하위척도 중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 4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

구이다. 각 영역 당 4문항 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 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으로 나타났다.

2.2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며, 특정 과제 수행 및 학업 성취 상황에서 수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요인이다[9][10].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6]이 개발한 'General Self-efficacy Scale'을 전상원[17]이 번역 및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동기적 측면 8문항, 인지적 측면 7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76으로 나타났다.

2.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적절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가지고 직접 임상 수행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8][19].

본 연구에서는 이원희 등[20]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도구를 최미숙[2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7로 나타났다.

3.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일 대학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 (승인번호 IRB1044348-20141205-HR-011-02)를 받았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가보고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연구 위험성은 Level I 인 최소위험에 해당되나 연구의 피험자에 책임 연구자의 학생이 포함

되어 취약한 피험자 군에 속함으로 연구 동의과정 및 작성과정에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학과 홈페이지에 연구 모집 공고를 올리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책임 연구자가 아닌 연구 조사원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을 설명 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설문을 그만둘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은 2015년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일 대학의 학과장의 협조를 얻어 연구 조사원이 학과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연구대상 간호학생들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시간은 약 10-15분이 소요되었다. 총 240부의 설문지 중 212부(88%)가 수거되었고, 미완성된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199부(83%)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PSS-WIN 19.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감성 지능, 자기 효능감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p>.05$ 으로 정규분포가 확인되어 independent samples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감성 지능 및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학생이 86.9%, 남학생이 13.1%으로 여학생이 대다수

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2학년 31.7%, 3학년 33.1%, 4학년 35.2%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학점은 '3.5이상 4.0미만'이 51.7%, '3.0 이상 3.5 미만'이 31.7%, '4.0 이상'이 12.6%, '3.0 이하'가 4.0% 순 이었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가 40.2%로 가장 많았고, '만족하지 못한다'가 29.2%, '보통이다'가 19.1%,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가 8.0%, '만족한다'가 3.5% 순 이었다.

인문 및 인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86.9%로 '필요 없다' 13.1%보다 월등히 많았다[표 1].

표 1.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n=199)

특성	변수	n(%)
성별	남자	26(13.1)
	여자	173(86.9)
학년	2	63(31.7)
	3	66(33.1)
	4	70(35.2)
	<3.0	8(4.0)
학점	3.0-3.4	63(31.7)
	3.5-3.9	103(51.7)
	>4.0	25(12.6)
	없음	84(42.2)
종교	있음	115(57.8)
	없음	84(42.2)
임상실습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16(8.0)
	만족하지 못한다	58(29.2)
	보통이다	38(19.1)
	만족한다	7(3.5)
	매우 만족한다	80(40.2)
시뮬레이션 실습 여부	있다	178(89.4)
	없다	21(10.6)
인문 및 인성 교육의 필요성	필요하다	173(86.9)
	필요없다	26(13.1)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 지능, 자기 효능감, 임상수행능력

간호 대학생의 감성 지능은 7점 만점에 4.7점,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3.2점,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4점이었다.

4학년 재학생이 2, 3학년 재학생보다 감성 지능($F=10.39, p<.001$), 자기 효능감($F=3.93, p=.021$), 임상수행능력($F=9.0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 지능($F=5.16, p=.001$), 임상수행능력($F=10.5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t=2.39, p=.018$)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2.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 지능, 자기 효능감, 임상수행능력

특성	변수	감성 지능		자기 효능감		임상수행능력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전체		4.7±0.81		3.2±0.34		3.4±0.56	
성별	남자	5.0±0.88	1.43	3.2±0.35	1.20	3.7±0.48	2.39
	여자	4.7±0.79	(.154)	3.2±0.33	(.234)	3.4±0.56	(.018)
학년	2	4.6±0.82 ^a	10.39	3.1±0.35 ^a	3.93	3.3±0.52 ^a	9.06
	3	4.5±0.74 ^b	(.001)	3.1±0.29 ^b	(.021)	3.3±0.52 ^b	(.001)
	4	5.1±0.75 ^c	c.)a,b. (scheffe)	3.3±0.35 ^c	c.)a,b. (scheffe)	3.7±0.57 ^c	c.)a,b. (scheffe)
학점	<3.0	4.4±0.92	0.86	3.3±0.39	2.01	3.2±0.49	0.49
	3.0-3.4	4.7±0.71	(.463)	3.2±0.35	(.115)	3.4±0.59	(.687)
	3.5-3.9	4.8±0.83		3.1±0.32		3.5±0.57	
	>4.0	4.9±0.90		3.3±0.30		3.6±0.46	
종교	있음	4.7±0.84	-0.52	3.2±0.35	0.82	3.5±0.54	1.01
	없음	4.8±0.79	(.604)	3.1±0.32	(.413)	3.4±0.57	(.313)
임상실습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4.5±1.13 ^a	5.16	3.3±0.39	0.83	3.1±0.64 ^a	10.58
	만족하지 못한다	4.5±0.82 ^b	(.001)	3.1±0.35	(.509)	3.1±0.47 ^b	(.001)
	보통이다	4.6±0.73 ^c	d,e.)a,b,c. (scheffe)	3.1±0.35		3.4±0.44 ^c	d,e.)a,b,c. (scheffe)
	만족한다	4.9±0.71 ^d		3.2±0.32		3.6±0.56 ^d	
	매우 만족한다	5.3±0.97 ^e		3.2±0.29		4.0±0.69 ^e	
시뮬레이션	있다	4.7±0.83	0.12	3.2±0.34	0.75	3.5±0.58	0.89
실습 여부	없다	4.7±0.61	(.908)	3.1±0.28	(.452)	3.4±0.33	(.377)
인문 및 인성 교육의 필요성	필요하다	4.1±1.23	0.72	3.2±0.35	-0.38	3.5±0.56	2.04
	필요없다	3.9±1.08	(.473)	3.2±0.26	(.722)	3.2±0.52	(.042)

인문 및 인성 교육의 필요성 유무에서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필요없다’고 답한 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t=2.04, p=.04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2].

3. 감성 지능 및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감성 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감성 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성(r=.566,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성(r=.44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감성 지능 및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변수	감성 지능	자기 효능감
임상수행능력(전체)	.566(<.001)	.440(<.001)
간호과정	.544(<.001)	.399(<.001)
간호기술	.437(<.001)	.423(<.001)
교육/협력관계	.428(<.001)	.389(<.001)
대인관계/의사소통	.525(<.001)	.331(<.001)
전문적 발전	.577(<.001)	.374(<.001)

4.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감성 지능, 자기 효능감, 일반적 특성을 회귀분석 식에 투입한 후 입력방식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 검증을 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 결과 d=1.750로 수용 기준에 부합하여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 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를 산출한 결과 공차 한계 0.1이하, 분산팽창지수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과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7.239, p<.001), 모형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²)는 .483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 지능(β=.390, p<.001), 자기 효능감(β=.313, p<.001), 성별(β=-.112, p=.032)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β	t	p
감성 지능	.269	.038	.390	7.013	<.001
자기 효능감	.521	.088	.313	5.902	<.001
성별	-.184	.085	-.112	-2.164	.032

$R^2=493$, Adj. $R^2=.483$, $F=47.239$, $p<.001$

IV.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의 감성 지능 및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감성 지능은 자기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성을 조절 및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8].

Benson, Pleg, 그리고 Brown[22]은 감성 지능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억누르지 않고 감정이 개입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 방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8].

간호사는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고 다양한 전문 직종들과 함께 근무해야 하는 직종인 만큼 높은 감성 지능이 요구된다[8]. 여러 연구에서 감성 지능이 간호사의 간호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8][23][24]. 본 연구 대상자의 감성 지능은 평균 평점 7.0점 만점에 4.7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국내에서 같은 도구를 이용한 이경희, 송정수[25]의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감성 지능이 4.8점, 이외선, 구미옥[26]의 연구에서 4.75점, 신은정, 박영숙[29]의 연구에서 4.76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동일한 측정도구로 간호사의 감성 지능을 확인한 연구에서도 감성 지능이 4.62점[8]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중등도 이상'을 나타냈다. 국외의 경우 같은 도구를 이용한 연구는 없었으나 Beauvais, Brady, O'Shea, 그리고 Griffin[30]의 연구에서는 감성 지능이 0.53점(Range: 0.36-0.62)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바탕으로 한 국내의 비교는 아니므로 정확도는 떨어지나 국내의 간호 대학생의 감성지능이 국외의 간호 대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차이 및 교수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은 개인이 처한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주요한 인지적 요소이다[9][10]. 이에 자기 효능감은 문제 해결 능력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11][12].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적 믿음이 필요하다. 간호사가 상황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이다[12][27].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은 평균 평점 5.0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국내에서 같은 도구를 이용한 양선이[10]의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이 3.0점, 동일한 측정도구로 다른 군 대상자인 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기 효능감을 확인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3.25점[28]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인 '중등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Bandura[9]는 자기 효능감 이론(self-efficacy theory)에서 성공적인 실제 경험과 관찰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직간접 임상경험 기회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다.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4점(Range: 1-5점)이었다. 이는 이외선, 구미옥[26]의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3.25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5가지 하위 영역 모두 이외선, 구미옥[26]의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에 2, 3, 4학년 모두를 포함하였으나 이외선, 구미옥[26]의 연구에서는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상수행능력은 지속적인 임상실습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간호과정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성 지능과 임상수행능력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r=.566$, $p<.001$)를 보여 감성 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수

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 중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 지능과 임상수행능력과 상관관계를 살펴 본 이외선, 구미옥[26]의 연구를 보면 감성 지능과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r=.464, p < .001$)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감성 지능의 하위영역 중 감성조절이 임상수행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성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감정 개입이 많고 다양한 변수를 가지는 임상상황에서 주체적으로 자기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r=.440, p < .001$)를 보여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 중 미국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Rice[32]의 연구에서도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미정, 오효숙[12]의 자기 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51, p < .001$)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도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주도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예측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7.239, p < .001$).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 능력, 자기 효능감, 성별의 순이었다.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총 48.3%이었다. Rezwan, Akram, Novroozali, Hossin & Mirmosav[33]에서도 간호 교육에 자기 효능감이 높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감성 지능 및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수법 활용 및 학습 전략 고안이 필요해 보이며 이 요인들을 개발하는 과정이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성 지능 및 자기 효능감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포함함으로써 간호 대학생들의 학업 참여를 유도하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변인과 매개변인을 분류하여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추후 확대된 연구 대상자 표집을 바탕으로 경로모형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보건 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전문 간호사가 되어야 하는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킬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간호 대학생의 감성 지능 및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 대학생의 학년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감성 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그리고 자기 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감성 지능의 하위 영역 중 감성조절과 타인감성이해였고, 자기 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동기적 측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임상수행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감성 지능과 자기 효능감 향상 및 회귀분석 결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인 감성조절, 타인감성이해, 동기적 측면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및 교과 외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 대학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연구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감성 지능과 자기 효능감이 반영되는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의 성적을 구분하여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1] 이외선, 구미옥,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2749-2759.
- [2] 강양희, 홍민주,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16권, 제5호, pp.2841-2853.
- [3] 최미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05.
- [4] 홍선영,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5797-5804, 2011.
- [5] 김민희, *영아의 사회 정서적 적응과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의 관계*,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경기, 2010.
- [6] J. D. Mayer and P. Salovey, “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Vol.17, pp.433-442, 1993.
- [7] C. S. Wong and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ip Quarterly*, Vol.13, pp.243-274, 2002.
- [8] 이수진, *임상 간호사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능력과 업무성과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기, 2013.
- [9] 김주형, 송주은, 이순규, 허수경, 성영희, 이정은, “임상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조직성파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1호, pp.80-89, 2011.
- [10] 양선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4권, 제7호, pp.334-345, 2014.
- [11] 신희덕,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심리치료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07.
- [12] 심미정, 오효숙,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328-337, 2012.
- [13] 홍선연,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5797-5804, 2011.
- [1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nd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 [15] 정현우, *조직구성원의 감성지능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2007.
- [16] M. Sherer, J. E. Maddux, B. Merca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and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pp.663-671, 1982.
- [17] 전상원,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용인, 2009.
- [18] C. Barret and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7, pp.364-371, 1998.
- [19] 차주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남, 2013.
- [20] 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간호학논집*, 제13권, pp.17-27, 1990.
- [21] 최미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 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05.

[22] G. Benson, J. Ploeg, and B. Brown, "A cross sectional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Vol.30, No.1, pp.49-53, 2010.

[23] 양정숙, *일 대학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업무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04.

[24] 최은주,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조직몰입과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11.

[25] 이경희, 송정수,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행정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7-25, 2010.

[26] 이외선, 구미옥, "간호대학생을 위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혼합연구 설계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제44권, 제6호, pp.682-696, 2014.

[27] 정복례 외, *문제중심학습 모듈 개발*, 서울: 현문사, 2006.

[28] 황중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자기효능감이 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2013.

[29] 신은정, 박영숙,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5636-5645, 2013.

[30] A. M. Beauvais, N. Brady, E. R. O'Shea, and M. T. Griff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31, No.4, pp.396-401, 2011.

[31] A. T. Yazachew,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gender in analytical chemistry at debre markos college of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23, No.2, pp.188-197, 2012.

[32] E. Rice, "Predictors of successful clinical performance in associate degre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or*, Vol.40, No.1, 2015.

[33] H. Rezwan, G. Akram, K. Novroozali, G. Hossin, and J. Mirmosavi, "Factors affecting the teaching learning in nursing education," *GSE Journal of Education*, pp.174-184, 2013.

저 자 소 개

양 선 이(Sun-Yi Yang)

정회원



- 2006년 12월 : 미국 하와이퍼시픽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10년 5월 : 미국 하와이퍼시픽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3년 1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박사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간호, 간호교육